

24 전도자의 삶

잠언 6:12-24, 데살로니가전서 5:4-11

최정웅 목사님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 옆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하와이를 간다고 했다. 어떻게 가시느냐 했더니 신희여행을 간다고 했다. “신희여행인데 신부는 어디 가고 혼자 가십니까?” 했더니 남자가 대답했다. “집에 있습니다. 전에 가본 곳이라고 해서 돈 낭비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혼자 갑니다.” (웃음)

사람은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어 있다. 내 생각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구두쇠라서 돈에 완전히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희여행의 목적도 잊어버릴 만큼 돈에 몰입되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이야기할 24시라고 한다. 온통 생각 속에 돈만 들어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돈 24시다. 어떤 사람은 도박 24시다. 어떤 사람은 음란 24시다. 어떤 사람은 알콜 24시다. 또 어떤 사람은 게임 24시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알콜 24시인 사람은 술을 안 마실 때도 늘 술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제 가서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분이 좋다. 24시다. 그런데 결국 알콜 24시를 하다 보면 성공하는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멸망의 24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24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잠언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나의 24시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1. 실패할 수밖에 없는 24시

본론에 들어가서 큰 첫 번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24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무슨 율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루터는 초반에는 죽이고 후반에는 살려라 말했다. 복음으로 살리라고 했다. 어떤 24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 24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24시를 꺾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24시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구약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다.

(1) 잠언 5장은 음란과 불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6장 20절부터 7장 전체가 다시 음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상 풍속과 타락을 따라가는 24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했던 높은 사람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 하고 고발당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름이 거명된 자만 그랬겠는가. 성경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게 많다. 그분 연기를 보면서 연기를 참 잘 한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실력도 있고 교수까지 되었는데,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그게 지옥 가는 것이다. 가토 유다가 죄를 많이 짓고 베드로가 죄를 적게 지어서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다만 다른 것은,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했고, 가토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다. 그게 더 양심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옥에 갔다. 자살은 지옥이다. 아마 그 사람은 감옥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자식을 볼 면목이 없고 세상을 볼 면목이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고발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표를 내고, 생명을 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년 동안 그런 타락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 사실은 평생 그랬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타락 24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2) 6장 앞부분에서는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고 했다. 빚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보증도 보증이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카드 돌려막는 것 함부로 하지 마라, 사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런 의미도 된다. 그 뒤에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름에 대해서 훈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난, 실패, 무능 24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사는가. 그러나 잠으

로 24시 되어 있으면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규모 없이 경제생활을 하면 가난 24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실패의 24시를 벗어나라는 것이다.

(3) 이것이 멸망에 빠지는 24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눈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고,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악한 계교를 꾸미고, 발은 악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다. 몸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멸망하는 쪽으로만 줄곧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잠언 6:15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실패의 24시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타락 24시, 무능 24시, 멸망 24시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이 배경에 있는 악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이 사탄이 주는 24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지적은, 거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떡하든지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무너뜨려라, 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회복해야 할 복음 24시

두 번째 크게 이야기할 것은, 우리는 이 실패의 24시를 뒤집도록, 복음 24시를 회복해야 한다.

(1) 왜 복음 24시를 해야 하는가? 이 복음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답이 되기 때문이다. 멸망에서 건지는 답이 되기 때문이다.

① 잠언 6:12에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 이 구부러진 말을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인가? 사탄이다. 창세기 3:4-5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불량하고 악한 자의 정제다. 우리를 속여서 거짓되게 믿게 만드는 것이다.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마음에 패역을 품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바로 패역한 자, 반역자라는 뜻이다. 마귀라는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 정제가 여기에 이렇게 폭로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그 결과로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

②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이 해결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분을 생각할수록 평생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탄의 권세를 모두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 버리신 그리스도시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시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갔더라도 지금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4세기 초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머리가 멍석했다. 그 어머니는 모니카였는데 아주 신앙심이 깊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를 따라서 15살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 그런데 유학을 떠났는데, 엄마 품을 떠나면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 17살에 창녀와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마니교에 심취했다. 완전히 이단에 빠졌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했다. 한번은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다.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자매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소.” 유명한 말을 한 것이다. 그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를 가르치는 교수까지 되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창가에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소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퍼서 읽어라, 퍼서 읽어라”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서 성경을 봤는데, 로마서 13:11-14가 딱 나온 것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읽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박히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 이 사람이 결국 초기 기독교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의 <참회록>을 읽지 않은 크리스천은 아직 진정한 참회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던지, “나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정도까지 했다. 한번 읽어보라.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어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원수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한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일본 사람처럼, 네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좋겠는가. 제사 드려본 사람은 안다. 제사 계속 드리는 것이 미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 주일에 세수도 안 하고 와도, 양말도 안 신고 와도 쫓아내지 않는다. (웃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골로새서 1:13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골1:14).” 자살하지 말고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된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 죄 짓기 전에는, 죄 지으면 죽는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괜찮다고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법으로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것은 복음이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1:4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다. 내가 죽을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가 맞을 때를 그리스도께서 맞으시고, 내가 못 박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주셨다. 내가 찢려야 할 창을 옆구리에 찢리시고, 내가 흘려야 할 모든 물과 피를 주님이 다 흘리셨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악한 자의 패역한 길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2)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붙잡았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을 바꿔라. 술 오직, 음란 오직, 오락 오직이었다면 그 오직을 바꿔라. 24시를 바꾸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17:1-8에 말씀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할 부분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단계다. 이것을 반드시 가야 한다.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 “그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설교가 복음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직 복음만 말하는 분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아하’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와 이 설교가 뭐가 다른지 구분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복음을 분간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요한 복음 14:6에 말씀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유일성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다. 사도행전 4:12에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다. 다른 길도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도 없다. 구원받을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 유일하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아라.

(3)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24시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복음 24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① 먼저, 구부러진 말, 패역한 말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바꿔 가시기 바란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말씀을 똑바로 붙잡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것이 습관, 체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뭔가 삐딱하게 된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내 모든 문제는 끝났어. 이 악마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물리쳐야 한다. 메시지를 들어도 삐딱하게 듣는다. 이것은 내가 패역한 자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 살리는 사람, 치유의 사람이 된다. 그게 복음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랬더라도 상관없다. 오늘 고치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바울처럼, 오늘 끝내면 된다. 말씀을 내 것으로 정확하고 순수하게 붙잡아야 한다.

②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다. 멸망 24시는 눈, 입, 손, 발, 전부 멸망하는 쪽으로만 쓰게 만든다. 멸망 24시가 그것이다. 그게 사탄이 조종하는 결과다.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는 것이다.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 복음이 각인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눈으로 자꾸 말씀을 보고, 귀로 자꾸 말씀을 듣고, 말로는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계1:3). 손으로 말씀을 녹취하고, 발로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자꾸 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입술로 신앙고백하는 것을 계속 해 보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뇌에 있는 각인이 바뀐다. 계속 부정적인 말, 비뚤어진 말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내가 세뇌되어 버린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자꾸 각인을 바꿔라.

③ 잠언 6:20-21을 보니까,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고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잘 때 너를 보호하고, 깬 때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닐 때, 깬 때, 잘 때를 합하면 24시 아닌가. 24시 모든 스케줄을 복음과 연결시켜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LA공항은 너무 복잡하다. 몇 바퀴를 돌아도 차를 세울 데가 없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빈 자리가 바로 생겼다. ‘그러면 그렇지.’ 하찮은 것이지만, 나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엔트리라고, 공항에 들어갈 때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했다. 박서진 간사가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다 해 놓았는데 안 되는 것이다. 나중 에야 된다는 것이다. 4월 것까지 예약이 다 끝나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자리가 딱 있다는 것이다. 그게 LA공항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약을 했더니 딱 맞아졌다. 시간이 되어서 갔더니, 분명히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 내 이름이 예약자 명단에 없다는 것이다. 최 장로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니까 가우뚱하면서 그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 어차피 비행기 시간까지 8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기다렸다. 그리고 있으니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떤 직원이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명찰을 보니 “CHOI” 나를 인터뷰할 사람이 써져있던 것이다. 원래 영어로 해야 할 것인데, 한국어로 몇 가지 아주 쉽게 인터뷰를 하더라. 내가 기다리면서도 계속 기도했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되어도 안 되어도 그리스도인데, 안 되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서진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쳤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넘버가 당신 넘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다. 24시 전도자의 삶이다. 여담으로 한 이야기다. 이런 일들을 삶의 여정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전도자로 부르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을 조금 떼어서 전도를 위해서 쓰는 정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전체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삶과 전도를 분리시키지 마라. 삶과 복음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삶 전부를 주 앞에 드려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삶 전부를 복음 누림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24시다. 정말 복음 누리는 24시를 가지고 집중을 회복하면, 분명히 삶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모든 삶의 순간 순간을, 삶 전부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도록, 24시 누림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24시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저희에게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원수가 무너지고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져서 죄인이지만 이제 주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며, 의의 길 생명의 길 전도자의 길 살리는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모든 상처받은 분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